

##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운명

###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 “청신호”

(주)세정파트너스 외 5개 업체 조합원들 막판 표심 잡기 위해 고군분투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조합측은 대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주)세정파트너스 외 5개 업체에 대해 오는 6월 3일 제안설명회(PT)를 갖고 PM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새롭게 사업 추진을 맡은 부동산개발사업 전문회사 (주)세정파트너스의 현장사무소 개소식 현장.

경기도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오는 6월 3일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PM사업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여년 째 지지부진하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PM사를 선정하며 속도를 내다가 선정된 PM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기약 없는 사업 지연이 예상되었지만, (주)세정파트너스, 지앤비대구조성(주), (주)에스피엠씨, 넥스플랜(주), (주)필라다임, (주)한국토지신탁사 등 6개의 업체가 새로운 사업자로 등장하면서 사업 추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합측은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주)세정파트너스 외 5개 업체에 대해 오는 6월 3일 제안설명회(PT)를 갖고 PM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주)세정파트너스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쥐고 있는 NPL채권을 지난 1월 3일 대주단(케이비증권·현대차증권)과 계약하고 지난 4월

24일 예치금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5월 7일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도 제

출한 바 있다.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은 “6월 3일 PM사업자로 (주)세정파트너스가 선정된다면 1차적으로 관련 세금 및 공과금을 2-3일내에 납부하고, 체비지의 가압류·가처분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며, “조합원님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실시하고, 사업비가 초과되더라도 조합원님들의 추가 부담금 없이 국내 대형 건설사가 책임준공 및 조기 착공을 하여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이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시의 숙원사업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각종 소송 등으로 속도를 못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PM업체가 나선다면 용인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합원들의 권리와 명품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전해왔다.

김성욱 기자 swk0482@daum.net

### 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식약처 “수급상황 원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는 것이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서기원 기자 kscopseo777@naver.com

### 고양 쿠팡물류센터 직원 1차 전수검사서 486명 ‘음성’



고양 쿠팡 물류센터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직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고양 쿠팡물류센터 직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전수검사서 48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전날부터 고양 쿠팡물류센터와 지역 내 3곳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센터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48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센터 관련 검사 대상자는 711명으로 파악돼 나머지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해 파악 중이다.

방역 당국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로 이날도 센터에 설치한 선별진료소를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고양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해 온 2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센터를 폐쇄 조치하고 방역당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5일 발열,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으며 28일 계양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곽동근 기자 joongwon1993@hanmail.net

#### 알림

서울수서경찰서 재향경우회 김현규 회장, 차녀 결혼식 6월 27일

일시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장소 더컨벤션 송파문정 13층 아모르홀

#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 (주)세정파트너스

# 이철우지사, 총리에게 통합신공항문제, 영일만대교 건의

## 신공항, 영일만 대교, 뉴딜사업으로 건의 국무총리가 중심 되어 해결해 줄 것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데 이어, 5. 26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더 이상 머뭇거리기 시간이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특히, 통합신공항은 코로나 19 이후 무너진 국가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포항 영일만횡단

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는 환동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단교로서, 특히 현재 고속도로를 대체해 활용중인 우회도로의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포항~영덕,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구간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업 역시 코로나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한 뉴딜사업으로 국가차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구 취소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는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철우 지사의 노력에 감



사의 뜻을 전하고, 포항지진에 대해서도 관련 위원회에 포함시 추천 인사를 반영하는 등 지진피해 구제와 경제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총리는 조만간 대구경북을 방문해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연천군, 안전한 등교생활 위해 생활수칙 홍보

마스크착용, 30초 손 씻기, 환기·소독  
사람간 거리두기와 마스크도 1매 배부



경기 연천군은 최근 연천군보건 의료원 직원 및 방역 요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교를 시작한 관내 초등학교(전곡초, 화진초)와 전곡중, 전곡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홍보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홍보는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됐던 학교 등교가 순차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생활수칙 홍보를 위해 참여 인원을 3개조로 나눠 마스크 착용, 30초 손 씻기, 사람간 2m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등의 생활수

칙을 홍보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를 위해 마스크 1매를 홍보용품으로 배부하였다. 이번 홍보에 참여한 관계자는 "등교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에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생활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김승곤 기자

## 코로나19는 느슨해진 경각심을 파고 듭니다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지하철 제한  
역무원·도시철도 보안관 순회 점검 강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정책 이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기 위해 최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지하철 이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역무원이나 도시철도 보안관들이 게이트 및 전동차 내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거절·하차요구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안면인식 활용 우수 취업처 검색 및 AI 자동추천 기능을 제공하며 스크랩, 프린트, 직업테스트, 이력서 사진촬영 등 부가콘텐츠도 제공하여 이용객의 즐거움도 선사한다. 아울러 2021년 비대면 방식의 동영상 이력서를 송출하는 디지털 면접서비스(화상면접)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인 구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져 구직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올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직접 만남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김영찬 기자

## 예천군, 전 군민 대상 '군민 안전보험' 가입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 입은 군민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

경북 예천군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인 피보험자로 보험료 전액을 군비로 일괄 부담하고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의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 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예천/장성우 기자

##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다연씨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동선 파악 등  
역할조사에 큰 역할, 뒤늦게 밝혀져 화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 거주 외국인 코로나19 확진환자 역할조사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정다연씨. 경기 광주시 등에 따르면 송정동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A씨는 이태원의 한 클럽을 방문, 지난 5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인 A씨는 확진 판정 이후 잠적했으며 광주경찰서 소속 베트남 출신 이보는 경장이 A씨를 설득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정씨는 A씨의 역할조사와 동

광주/이근학 기자

## 의성 국가지질공원 심의... 5월 중 환경부 신청!

경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 개최  
의성 국가지질공원 신청안 심의

경북도는 최근 도청에서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후보지 신청안 심의를 위해 「경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성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는 의성군 행정구역 전체(1,175km<sup>2</sup>)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성산, 제오리 공룡발자국, 구산동 응회암 등 지질명소 7곳과 금성산 고분군, 낙단보 등 역사·문화·생태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비지질명소 5곳을 포함한다. 이날 위원회 심의에서는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후보지 신청안이 환경부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환경부 고시, 2017. 9. 12.)을 충분히 충족하는지에 대한 깊은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경북도는 심의·의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5월 중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국가지질공원 인증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먼저,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인증을 위한 조건을 부여받



고 국가지질공원 인증후보지로 지정 받게 된다. 이때 인증을 위한 조건을 부여하고 2년의 기한 안에 조건을 충족해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심의를 다시 한번 통과해야 한다. 경북도는 국가 및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신규 인증은 새로운 지역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과 함께 관광객 증대효과, 지질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상품 판매증대로 주민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의성 국가지질공원 최종인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지난 2017년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이후 전년 대비 가을철 관광객이 38% 증가한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지질공원 인증은 지역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앞으로 도내 지질공원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문경새재 생태미로공원 입장객 1만명 돌파!!



경북 문경시는 올해 4월 22일 개장한 문경새재 내 문경생태미로공원 입장객이 개장 31일 째인 지난 23일, 1만 명을 돌파한 10,205명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1만 번째로 입장한 안동에서 문경새재를 찾은 윤\*\* 가족에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상용 생태공원 담당이 문경새재 방문 기념품 및 문경특산품 오미자청을 증정했다. 문경생태미로공원은 전체 미로 길이 1.9km에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측백나무로 특색 있게 조성한 도자기미로, 연인미로, 생태미로와 문경에서 채취한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돌미로 등 4개의 미로로 이루어져 있다. 미로별로 설치되어 있는 도자기 및 연인 조형물을 통한 추억의 인생샷도 남길 수 있어 미로별 특색 있는 미로체험을 할 수 있다. 문경생태미로공원은 개장 후 1개월 간 직원 3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매일 600만원의 고정 비용에 1,778만원의 입장료 수입으로 월 1,178만원의 순수익을 거두었으며, 연말까지 1억 원의 운영 수익이 예상되어 문경시 대표 수익 관광시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지 어르신(일반, 단체) 입장객에게 문경시 농·특산물교환권(1,000원)을 배부해 2,060만원의 문경시 농·특산물 판매 촉진 효과도 거두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김학련 소장은 "문경생태미로공원이 개장 후 31일째인 오늘 입장객이 1만 명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입장객이 8만7천 명, 입장수입이 1억 6천만원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방문객 불편사항 개선으로 문경새재의 새로운 랜드마크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백승두 기자

## 삼중고에 신음하는 장기무급휴직자에 단비

장기무급휴직자 위한 지원책 마련  
도내 장기무급휴직자 900여 명 혜택

경상남도가 각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무급휴직자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장 경영상 위기와 장기무급휴직 등으로 오랜 시간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동자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 더해져 생계유지에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각종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있어, 경남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장기무급휴직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보장 혜택이 이미 만료됐고, 경남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50인 이하 사업장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 등의 각종 지원에서는 제외 돼 이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에도 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예산은 4억 5천만 원 전액 도비로 편성해, 9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보성군, 인구 4만 지키기 위한 종합추진계획 마련

보성군은 최근 2020년 인구 4만 명 지키기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구 4만 명을 지키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정부정책에 대응할 계획으로 각 부서의 다양한 시책추진과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성군은 '확실한 행복을 보장해주는 인구정책'을 목표로 △청년인력 유입을 위한 보성, △인구 유입 최대화, △인구 유출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정주여건 조성 등 6가지 분야에 대한 중장기 세부실천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인구시책 발굴 보고회를 바탕으로 보성군 인구 4만 명 지키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인구유입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보성군은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일시적인 인구 증가가 아닌 장기적인 인구 증가 방안을 고안하여 인구 정책 종합추진계획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 인식 개선, 인구정착화 분위기 조성 등 군민 인식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성/김정필 기자

# 정 총리 '코로나 블루' 우려...심리적 방역체계 정비

###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정신건강 위기 대처" "맞춤형 정책패키지 확대...고위험군 관리도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고립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소위 '코로나 블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심리적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환자, 자가격리자, 유가족, 의료진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에 대한 심리적

원과 함께 고위험군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부 정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보여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살을 줄여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도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별로 전담팀을 신설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패키지 지원도 확대해 지역사회의 자살위험을 계속해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노력



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에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참석해 충청남도의 자살예방 노력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다.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 부서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자살예방과제를 추진하는 협업모델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과 부친의 아파트 관리소

장계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있었다"면서 "우리 국민 다수가 생활하고 계신 공동주택에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되돌아보게 한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태근 기자

## 파주시의회, 국회도서관 의정정보시스템 업무협약



손배찬 경기 파주시의장과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파주시의회에서 지식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의회와 국회의 업무협약 체결은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을 지방의회에 제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및 국가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정자료 등을 수집 보존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으로 파주시의회는 국회전자도서관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회도서관이 엄선한 입법현안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방의회에서 생산되는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정보 등 발간자료 제공 및 공동 활용, △국회전자도서관 및 의회·법률 정보서비스의 공동 활용, △지방의회 생산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빙 협력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15년 6월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이 개통돼 현재 113개 의회와 업무협약을 완료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파주시에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손배찬 의장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파주시의회와 국회도서관 간의 다양한 정보 공유는 물론, 밀접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국회도서관과 지방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추진하는 정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지식 학습과 연구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의 발전된 의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원들이 전문적인 정보와 정책 등을 활용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파주/김성태 기자

## 유승민 등 지지개 켜는 보수 대권후보들, 지지율은 '요동'

### 홍준표, 비슬산에 올라 대권 도전 암시 유승민 "단일 후보 돼 민주당 이길 것"

보수진영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하나둘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결정하면서 잠룡들이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팬클럽 '유심초' 카페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1년 10개월 후 있을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가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며 "반드시 제가 보수쪽의 단일 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해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주변과 접촉을 늘리는 등 본격적인 정치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대선에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이번 메시지는 원외에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정치 행보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곧 여의도 인근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대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무소속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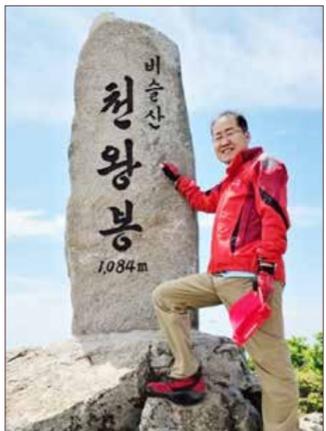


인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홍 당선인은 21대 국회 개원 후 대국민 정치 버스킹을 계획하고 있다.

홍 당선인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와각지쟁(鰐角之爭·하찮은 일로 벌이는 싸움)을 벗어나 큰 흐름을 쫓아가겠다"며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고 선거에 나갔던 것은 아니다"라며 대권 도전 뜻을 밝혔다.

홍 당선인은 지난 26일에는 페이스북에 비슬산 천왕봉에 오른 사진과 함께 "예로부터 비슬산 기슭에서 왕이 네 사람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홍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시점은 '복당' 문제가 해결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문제는 홍 당선인이 그동안 김내정자를 저격한 바 있어 복당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지는 미지수다.

총선 참패 이후 잠행하던 황교안 전 대표도 최근 당선인과 낙선인들에게 전화를 하며 안부를 묻는 등 정치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초·재선 당선인들은 총선 과정에서 황 전 대표의 n번방 발언 등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있어 복당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박세태 기자

## 문의남자탁현민아미자메야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의전비서관으로서 '이미지 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될 경우 공연 기획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탁 위원 등 비서관급 6~7명에 대한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탁 위원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아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사표를 내고 물러난 뒤 1년4개월 만에 단단계 승진해 청와대로 복귀하게 됐다.

청와대를 떠난 인사가 다시 복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문 대통령이 탁 위원을 깊이 신임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어내는 탁 위원을 곁에 두고 업무의 속도를 높인다는 현실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탁 위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2016년 6~7월 문 대통령의 내팔 히말라야 트레킹(도보여행)에 동행하기도 했다. 2012년과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행사 기획 업무도 맡았다.

/추동명 기자

## 이천시의회 조인희 의원, 예산절감 분야 최우수

경기 이천시의회 조인희 의원이 제7회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예산절감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최근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공헌해 온 우수의원 17명을 10개 분야별로 선발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표창패를 전달받아 이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진행됐다.

이번에 수상한 조인희 의원은 이천시 의용소방대와 시민경찰 등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통시장 소화시설을 개선하



는 등 소방시설 관련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이천경찰서와 협의해 근무 특성상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사고사례를 통한 생생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주관하는 등 화재 및 안전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천/유기영 기자

# 행복한 도시의 시작 함께하는 경기도시공사

##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찾아가는 생활안정지원금다운 효과 설문조사 실시 시민, 가맹점 모두 “코로나19 극복에 도움된다” 평가

경기 안산시가 내·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민생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평가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8~15일 오프라인을 통해 안산화폐 다운 이용 시민 424명과 가맹점주 667명을 상대로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 시민 77.4%, 가맹점주 67.6%가 '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시가 지난 7~11일 SNS를 통해 시민 1천5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5%가 '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이번 설문조사는 5명의 안산화폐 '다운' 마케터들이 가맹점주 667명을 찾아가고, NH농협은행을 방문한 고객 등 시민 424명을 만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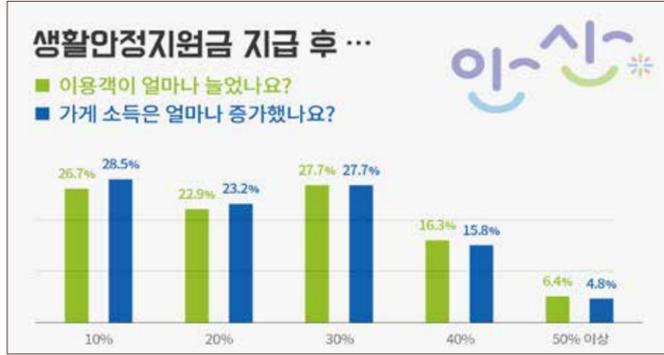
시민 응답자의 76.4%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답했고, 86.8%는 '다운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설문문에 참여한 가맹점주 모두 온라인 조사(75%) 때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도 응답자의 76.6%가 '생활안정지원금 정책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답해 생활안정지원금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설문에 참여한 가맹점주 전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후 이용자와 가게 매출이 모두 1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용객과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각각 50.4%, 48.3%에 달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주 76.3%는 다운을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등 다운과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발행된 다운은 지난해 전체 판매액인 3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656억 원이며, 이 가운데 지류식은 158억 원, 카드식은 498억 원에 달한다.

또 지난달까지 1억8천만 원이었던 다운카드 하루 평균 사용액은 생활안정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이달 들어(5.1~11) 3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8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운 10% 특별 이벤트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하고, 정책발행과는 별개로 일반발행도 1천억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온·오프라인 조사 결과에서 모두 생활안정지원금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다운 카드 빅데이터 분석,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자료를 개발·활용할 계획이다.

안산/김대성 기자

# 광명시, “안양천산책맘껏즐기자” 미세먼지차단

## 미세먼지차단수목 1600여 그루 식재 향후 5년간 5만 그루 수목 식재 나서

경기 광명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안양천(소하동)에 1,6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9-2023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5개년 사업을 추진해 5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며 5개년 사업 중 하나로 올해는 3억 원을 투입해 수일~광명 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소하동(안양천)구간 1.3km에 나무를 심는다.

이번에 심는 나무는 해송, 스트로브 잣나무, 사철나무 등 9종 1,628그루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록수 위주로 심을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하동 구간 안양천 산책길은 신설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이용 시민이 적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 공사로 산책길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2023년까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없는 광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정재두 기자

# 영주시, 신고업소 불법행위무신고 숙박업소 집중단속

##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경북 영주는 숙박업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고·등록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영주시는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진신고업소 확인 점검, 인터넷을 통한 모니터링,

불법 증축된 건축물 확인 등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폐쇄 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자진 등록·신고를 원하는 업소는 영주시청에 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따라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하거나 폐업처리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은 면책되거나 자진신고를 가장하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 처리될 수 있다.

영주/정승초 기자

# 용인시, 코로나19 낙인 피해 방지 ‘인터넷 지킴이’

## 확진환자 동선 공개 14일 후 정보 삭제 백사장, “한 사람 인권도 침해돼선 안돼”

경기 용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등 개인정보가 14일이 지난 뒤 온라인상에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인터넷 지킴이’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환자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완치된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나 낙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백군이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남아 있는 정보는 확진자와 이들이 다녀간 업소에 부메랑처럼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14일이 지난 정보는 빠짐없이 삭제될 수 있도록 관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 관리자들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월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SNS를 비롯해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에 부분별하게 게시돼 있는 확진자 관련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또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토록 요청하고, 불응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108만 용인시민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침해돼선 안된다는 방침으로 흔적을 지우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용인/유기영 기자

# 경주시, 어린이집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한다

## 150개소 대상으로 방역물품 추가 자체 방역 조치로 감염예방 총력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15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긴급보육이용 아동이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26일 현재 65%)로 총 3,9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비접촉식 체온계 280개를 식약처 지정업체에서 일괄 구입 후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에 따라 어린이 20명 이하 1개, 20명~50명 2개, 50명~80명 3개, 80명 이상 4개씩 지원했으며, 방역물품은 소독제 및 손세정제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우선 구매 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보육 시 밀집도와 접촉도를 낮추고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아동들이 위생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손 씻기 방법, 기침 예절 등을 아동들이 즐겨보는 캐릭터



동영상의 제공으로 아동 눈높이에 맞춘 위생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역대응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을 즉각 조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기호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방역물품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주/한반석 기자

# 경북도,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오염행위 꿈짜마!’

## 24시간 신고체계 전년도 대비 40% 증가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들 생활환경 보호

경북도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제도’가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증가로 인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23개 시·군과 도청에 설치된 전화(☎128), 인터넷 등 환경신문고를 통하여 접

수된 환경오염 신고는 11,148건으로 2018년에 비해 40%가량 증가했으며, 신고방법은 전화가 8,867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도 1,329건(12%)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신고가 5,654건(51%)으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 투기 등 폐기물분야가 2,989건(27%), 수질오염 610(5%) 그리고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 분야가 1,895(17%)를 차지하였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소백산 맑은 기운을 담은  
양질의 토양을 먹고 자란  
풍기인삼

세계 제일로 알려진 우리나라 고려인삼,  
그중에서도 제일로 평가받는 풍기인삼입니다.

홈페이지 www.kpgshop.co.kr  
문의전화 054-638-3434

풍기인삼농협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영주 소수서원·부석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합니다.

# 동해선,유라시아 철도네트워크 교통망으로 발전시킨다

## 경북도·부산시·울산시·강원도 4개 시·도 동해선 상생협약 체결

### 동해선 복선전철화, 동해선 전철화 조기개통 등 공동협력키로

경북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4개 시·도가 최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우병렬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동해선을 유라시아 철도네트워크의 핵심 교통망으로 발전시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상생발전 협약서에 서명했다.

'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지난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 기획되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한국·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사업을 이행하는 국가간 협의체이다.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동북아 철도현황을 고려해 효율적인 물류 운송이 가능한 4개의 최적 노선을 제시한 바 있는데, 서울기점 3개 노선은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으나, 동해선의 경우 단선·단절구간 등으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동해선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동해선을 공유하는 광역자치단체간 공동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4개 시·도가 함께 협력한 결과 이날 '동해선 철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업무협약서에는 경북도에서 요구한 동해선(포항~강릉) 복선전철화와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 조기개통을 비롯해 태화강~포항역 광역전철화, 강릉~제진 조기추진, 부전역 복합환승역으로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협력장구 구축을 위해 「동해선 상생발전 협의회」

를 구성·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북도 등 4개 시·도에서 '동해선 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상대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해선 철도가 모두 연결되고, 단선철도의 복선화로 철도교통망이 확충된다면 환동해 지역의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와 신북방경제 협력시대의 초석을 놓게 될 것이다"라며, "향후 동해선이 남에서 북,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고 유럽철도로 이어짐으로써 유라시아가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경상남도중국상해사무소,도내농수산물판촉행사

## 중국 진출 경상남도 농수산물 홍보 K-면역력 집중 홍보, 시식회 열어



경남도 상해사무소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도내 기업을 돕고자 경상남도 중소기업 제품 홍보·판촉 행사를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상해 한국거리에서 소재한 W마트 1호점과 3호점에서 동시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여파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홍삼·알로에·유자효차 등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K-면역력 상품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행사로 실시되었다.

행사에는 가고파힐링푸드의 도라지정 등 도내 14개 업체가 수출한 27개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이중 올해 중국시장에 첫 진출한 거제알로에팜의 슬림핏 알로에 시리즈, 평화식품의 헛개진액 등 5개 업체 9개 제품이 중국소비자들에게 첫 신고식을 가졌다.

또한, 행사 첫날인 22일에는 현지 대형 유통업체 및 수입 바이어 7명을 초청하여 시식·상품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참가업체 중 코스트코, 허마, 까르푸와 유통하는 상해 거대유통업

체 중 하나인 상해연세무역유한공사에서는 7월 개장 예정인 남경시수입식품 판매점에 경남상품 일부를 홍보 및 판매하기로 하였고, 향후 세부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국 경상남도 상해사무소 유정실 소장은 "코로나로 세계무역이 어려운 상황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여 중국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쌓았으며, 현지 바이어 초청 시식회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품질이 우수한 경남 농수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상해사무소의 우수제품 홍보와 중국 내 바이어 발굴에 노력하는 등 한중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경북도, 해외진출국내복귀기업(Reshoring)유치사활

## 국공유재산 수익계약 특례 등 대폭 지원 이전수요 높은 중국진출기업 우선 공략

경북도는 국내복귀기업의 유치 및 설비 장비 지원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시책 마련해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의 유치(Reshoring)에 필요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미·중 무역분쟁 확산 등으로 공급망이 붕괴된 중국진출기업의 사업장 이전 수요 증가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3월 11일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관련 법령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신설하고 공공장용지의 수익계약 및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 및 감면, △공공유지 임대 전용단지 우선임주 등 다양한 대책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의 국내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비도 확대된다.

경북도는 연관산업 유치효과가 높은 대기업을 도내투자 시 국비지원 한도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에 대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투자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입지자금의 조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하고 리쇼어링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구미 제5공단을 추가로 지정해 유턴기업 입주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이 설비투자금액 이외에 토지매입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중국진출기업 리쇼어링을 위해 노동집약산업인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업종을 타깃 기업으로 선정, 모기업을 방문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북도에서는 국내복귀기업유치를 위해 작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외진출 모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코트라와 함께 도내 유치기업의 소용량구인해피모니터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경북도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관련 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 9개의 기업을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받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을 유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이 도내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도록 R&D, 입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리쇼어링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리쇼어링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시네마 커뮤니티 구축해 영상문화 다양성 확대

## 수원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사업'



경기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권역에서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시네마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규모 영화제를 개최하고, 영상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다채로운 사업들이 전개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는 최근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2020년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번 공모사업으로 수원미디어센터는 영화를 매개로 한 주제별 커뮤니티를 형성해 영화문화 네트워크와 문화다양성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영화제로 ▲이주민의 삶을 알리는 지역영화제 '수원이주민영화제' 운영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에 맞춰 '지속가능발전환경영화제(가칭)'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경기 영화학교 연합 학생들의 작품을 상영하고 교류의 장이 될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 ▲아르헨티나와 한국 초등학생들의 교류 영화제를 진행할 영화학교 '놀다'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여기에 ▲시네마커뮤니티 활동 지원(지역 특화 영화문화 사업) ▲영화인문학 강좌 ▲네트워크 협력체 '차이의 사이를 잇다' 운영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네마커뮤니티들의 활

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친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원미디어센터는 지난 3월 경기영화학교연합, 문화예술 놀다 등 경기 남부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개 단체와 '경기권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력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으로 경기 남부권의 예술고등학교, 영화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영화 관련 단체 등의 지역영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영화문화 관련 인프라와 사업 등 기반 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지친 시민들에게 풍성한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는 '영화로 수다극장', '수원이주민영화제', '수원사람들영화제', '수원인문학 강좌' ▲네트워크 협력체 '차이의 사이를 잇다' 운영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네마커뮤니티들의 활

수원/김승근 기자

# "알바도 노동자다"··'노동권의 서포터즈' 운영

## 경기도노동권의 서포터즈 6월 활동개시 시군,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사 참여

경기도가 올해부터 편의점 알바 등 도내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노동권의 서포터즈'를 본격 운영한다.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양·부천 등 6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한 국미니스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노동권의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기관들은 '노동권의 서포터즈'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긴밀히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권의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고양, 부천, 시흥, 평택, 양주, 양평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각 시군별로 2~4명씩을 선발해 총 20여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들은 도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과거 단시간·취약 노동자로서 근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들을 중심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이후 노동관계법 및 활동 매뉴얼 숙지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설명회, 정기 워크숍을 실시해 관련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노동권의 서포터즈는 앞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 고용질서 정착을 유도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승근 기자

# 농협 파머스 마켓

안전한 먹거리, 행복한 쇼핑은 농협 파머스 마켓에서...

검색창에서 **농협파머스마켓** 검색하세요!!

http://nhfm.co.kr

발에서 방금 수확한 [신선함]

농가의 얼굴이 담겨 있는 [신뢰성]

친환경 재배에 의한 [안정성]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저렴성]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애향심]

- 농산, 공산, 축산물, 수산물 외에도 로컬푸드, 즉석식품, 선식, 문구·완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약 1만명의 멤버를 보유하고있는 영주농협 파머스마켓의 밴드를 통해 매주 행사 및 다양한 소식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밴드를 통해 공동구매도 시행하였고, 밴드 멤버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농협파머스마켓 쇼핑을 모바일앱이 개설되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신 후 손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DREAMING WITH YOU AND NH

농촌과 도시가 서로 행복해지도록 영주농협이 함께 합니다

# 경기도, DMZ 문화재 조사 문화재청-강원도와 공동 착수

##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시작으로 1년여간 총 40여 곳 대상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공동실태조사단발대식

경기도가 문화재청·강원도와 손잡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7월 11일 'DMZ 관련 경기도-문화재청-강원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첫 번째 조사는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 대성동마을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분단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에는 경기도(경기문화재단, 파주시)·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강원도(강원문화재연구소, 고성군)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하며, 개별 대상의 유형과 조사 일정 등에 따라 대외 20여 명 규모로 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갖고 실태조사의 추진계획, 조사 유의사항, 출입절차 등을 공유한 뒤 오후부터 대성동마을의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파주 대성동마을,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총 40여 곳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비무장지대 내 문화·자연유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조사 대상지인 파주 대성동 마을에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반영된 분단이 가져온 문화경관의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마을 서쪽에 자리한 '태성(台城)'을 비롯해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그동안 과거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해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1년여 동안 추진될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민족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찾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성근 기자

## 광명시장,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최우수' 선정

광명시장 "시민 약속한 116개 과제 이행할 것"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순위 10위권 내



광명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최우수 등급(SA)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광명시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매니페스토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지도 분야(Pass/Fail)로 1차 평가와 매니페스토 자료검증을 통해 5개 등급(SA, A, B, C, D)으로 평가, 총점 65점 이상을 SA등급으로 선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장은 취임 후 민선 7기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시정 방침아래 10대 시정전략 116개 과제를 선정해 임기 내 공약이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완료 공약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설치 ▲각 분야별 시정위원회 결성(커뮤니티) 및 운영 ▲일자리창조허브센터(광명시 창업지원센터) 증축 ▲청년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럭존 설치·운영 ▲자영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인 지원 기금 마련 ▲우리 노무사 제도 운영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사립책 도서관 운영 ▲광명시 아동보육전문기관 운영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 등 56건의 사업이다.

주요 추진 중인 공약은 ▲철산동(시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한국폴리텍대학 제2융합기술교육원 설립 지원 ▲광명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광명시는 광명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 방안 수립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노동자복지회관(이동노동자 쉼터) 건립 추진 ▲광명시형 공유농업 도입 추진 ▲광명시유희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연서도서관 건립 ▲영유아 체험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광명만리동물테마파크 조성 추진 ▲배드민턴 전용구장 구축 등으로 2022년 6월까지 임기 내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연속 50만 미만 시 59곳 중에서 3년 연속 종합 순위 10위권 내를 유지하고 있다.

광명/정재두 기자

## 하남시·현대건설·KCC '쿨루프 하남 2호 사업 완료'

대기오염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6월 대상지 실시 예정으로 만족도 최고!



하남시는 현대건설(주)(대표 박동욱)·KCC(대표 정몽진)와 대기오염 개선 및 취약계층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사업(조이동 소재 경로당)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이동 소재 C경로당으로 지난 8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첫날에는 작업준비와 물청소, 둘째 날에는 차열페인트 도색 작업(하도·상도)을 실시했다.

하남시와 현대건설·KCC는 급변 1월 업무협약 체결한 후 4월부터 매일 1개소씩 총 3개의 대상지를 선정해 쿨루프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쿨루프 하남?! 대상지는 풍산동 소재 경로당으로 6월 중 실시될 예정

이다.

김상호 시장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2개 대상지(상산곡동·조이동 소재 경로당)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들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쿨루프 하남?! 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남/이광희 기자

## 파주시 민통선 장단, 코로나19 차단 방역에 총력

파주시 최북단 민간인 통제선을 관할하는 장단출장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시설을 비롯한 마을을 구석구석을 매일 방역하며 청정지역 사수에 나서고 있다.

장단출장소는 지난 4월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출장소 청사와 관내 식당 입구 4곳에 자외선 살균 대인방역소독기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예방 공공근로 요원을 배치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 공공근로 요원을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집중 배치해 식당에 들어오는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는 물론 출입 전 소독을 필수로 하도록 해 신발·옷·모자 등에 묻어 있을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독하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찾는 방문객들은 불편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방문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각종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때에 살균 소독을 해주니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공공근로 요원은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방역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며 "식당 입구에서 살균 소독을 해주는 곳은 민통선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고 방문객들이 안심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 고양시 제2자유로 강매IC 교통 혼잡 개선공사 완료

고양IC, 능곡IC, 강매IC 개선사업 현재 일산IC 일원사업은 추진 중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해 9월부터 실시한 제2자유로 강매IC 일원 교통 혼잡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매IC는 제2자유로와 권율대로 접속 교차로로써 제2자유로 진출입 램프구간과 권율대로 하부교차로 모두 편도 1차로로 운영돼 직진, 좌회전 차량 대기 시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해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었다.

이번 공사로 강매, 행신동 주민들은 권율대로 하부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강매3교에서 우회도로를 통해 강매IC 진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권율대로에서 제2자유로 진입을 위한 내리막길에 좌회전 차로와 제2자유로 진출입 램프 양방향에 변속차로를 신설해 우회전 차량 교통류를 분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이로써 시는 지난 해 고양IC, 능곡IC를 시작으로 올 해 강매IC까지 3개소에 대한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일산IC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관내 주요 IC 일원의 교통혼잡



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성태 기자

## 실시간 측정·분석 첨단장비로 화학물질 안전 지킨다

안전관리 첨단 측정·분석차량 활용 첨단 분석차량 화학물질 동시 분석



한강유역환경청(최종원 청장)은 경기 시흥시 소재 삼양화학산업(주)에서 코로나 19로 느슨해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첨단 이동식 측정·분석 장비로 화학물질 불법 누출을 추적 감시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는 화학사고 수습·대응 장비와 100여종 화학물질을 이동하면서 동시에 측정·분석할 수 있는 차량을 선보이며, 사업장에서 누출된 화학물질 종류와 농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올해 초 한강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도입한 첨단 측정·분석차량은 저속(10km 이하) 이동하면서 톨루엔, 벤젠 등 화학물질 약 100여종을 초 단위로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 양지전이 질량분석기(PTR-TofMS) : 시료 전처리 과정 없이 기존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등과 비교하여 분석시간이 짧음(약 30분 → 수초)

또한,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표 물질\*인 염화수소, 암모니아, 불산 등 극미량(ppb) 누출물질도 초 단위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연속측정장비

(LGR)도 함께 구축하였다. 앞으로 한강청(시흥센터)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장 방문 점검 제한 등으로 느슨해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으로 실시간 측정·분석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취약·사고우려지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 된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취약지역 중심으로 매주 1회 이상 조사하여 오염도 변화가 심하거나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불법 누출을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흥/김대성 기자

##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홍보 확대 시행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홍보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공공장소, 식당 등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막연한 편견 때문에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많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계획 수립 후 관련 부서와 협조해 안내견의 의미와 출입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등을 적

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위생과와 협조하여 집합교육시 장애인 안내견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생활하기 어렵듯이 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은 눈이 자 발과 같은 존재임으로 안내견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상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안내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정부 시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의정부/김성근 기자

##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장 기관상 수상

양평군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지난 5월22일에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평가대회」에서 질병관리본부장 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19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요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여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 결과 발표에 의하면 양평군은 건강 수준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은 양평군 33.3%로 경기도 27.3%보다 6.8%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은 양평군 21.1%로 경기도 15.7%대비 5.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주요지표 중 흡연율, 금연 시도율도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걷기실천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부진한 지표로 분석되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이에 원은숙 보건소장은 "건강수준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우수한 편이지만, 모든 지표가 우수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양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양평/이근학 기자

## 기흥IC 하행 삼성전자방면 임시 우회로 28일 개통

정체 극심한 기흥톨게이트 일대 교통량 분산 상습 정체 해소될 듯



용인시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 하행(부산방향) 진출로에서 삼성전자(동탄) 방면 임시우회로와 삼성전자에서 동탄2신도시 방면 우회전 차로로 28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이 기흥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삼성2로(지방도 318호선)의 방면으로 빠질 수 있고, 삼성전자 쪽에서 동탄2신도시 방면으로 가는 차량도 톨게이트 앞 원형교차로를 지나지 않아도 된다.

차량 정체가 극심한 기흥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도록 교통량을 분산해 상습 정체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임시 우회로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기흥IC 개량공사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지난 3월 기흥IC

용인/김교연 기자

## 수원시, 쓰레기 수거 1시간 앞당긴 오전 5시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아침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자 올해 초부터 쓰레기 수거 시간을 오전 6시로 조정했던 수원시가 폭염이 예상되는 하절기에는 1시간 앞당겨 오전 5시부터 쓰레기를 수거한다.

수원시는 6월부터 9월까지 4달간 일출 시간 등을 고려해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을 오전 5시부터로 변경,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오전 5시~오후 3시에서 오전 5시~오후 2시로 조정한다.

수원시민들은 근무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평소처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시간을 준수해 쓰레기를 배양서 수원시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배출 시간 변경 조례 개정과 수거 노선 조정 등의 노력 끝에 올 1월1일부터 당초 오전 3시~낮 12시이던 근무시간을 3시간 늦춰 오전 6시~오후 3시로 주간근무를 시행했다.

주간근무 시행 이후 수원시 청소노동자의 만족도는 높았다.

수원시가 지난 4월 1~13일 13개 청

소대협업체 근로자 5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주 좋음' 193명, ' 좋음' 241명, '보통' 63명 등 96.5%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 주간근무로 인해 '피로도 감소(280명)', '저녁 시간 활용 가능성(266명)', '위험 감소(220명)' 등의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수원시는 음식점 밀집 지역의 수거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수거 노선을 조정하고, 청소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 사항 안내를 지속해서 홍보하는 등 민원대책도 꾸준히 지속해 주간근무의 정착을 도왔다.

특히 하반기 폭염 기간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출 시간과 행락철 미관 및 쓰레기 악취 문제 등을 고려해 하절기 근무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하절기 근무 시작 시각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오전 5시가 76%로 가장 많았던 점도 함께 반영됐다.

수원/김성근 기자

#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활짝 웃는 다문화마을특구

### 내·외국인 차별 없이 지급하는 시 생활안정지원금... 'K-방역'처럼 국적 높여 유희점 시장 '외국인 주민은 세금 내며, 지역경제 이바지하는 이웃이자 주민!'



안산시가 삶의 터전을 한국으로 옮겨와 정착한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7만원씩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다문화마을특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을 결정한 이후 정부, 경기도 등에서도 외국인 주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K-방역' 못지않게

국적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등 소비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마을특구 내 50석 규모의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을 운영하는 시민 임형섭 씨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주말이었던 지난 23일 정오가 되자 가게 내부는 이용객으로 가득 찼고, 가게 앞에도 2~3명 대기줄이 생겼다고 했다.

인근 중국백집 관계자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사용하는 외국인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으며, 파키스탄 음식 전문점 관계자도 "이용객 5명 중 1명은 안산화폐 다운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출신의 주민 옥사나 씨는 "동네 슈퍼에서 기저귀·삼푸·쌀 등 꼭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친구들과 점심에 고향 음식도 먹었다"며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처했고, 시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등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를 본국에 가서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점 안산시장은 "국내에서 납세자, 주민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라며 "외국인 주민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주민이자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강조했다.

안산/김대성 기자

# 하남시, 흡연율 개선으로 질병관리본부장 표창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하남, 흡연율 25.8%에서 16.4%로 개선!



하남시는 최근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 및 질병관리평가대회'에서 '현재흡연율' 지표 개선 사례로 질병관리본부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하는 소식지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2019년도 7월호에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하남'이 흡연율을 낮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며, 이를 구성수보건소장이 직접 발표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남시 2019년 현재흡연율은 16.4%로 2011년 25.8% 보다 크게 개선됐으며, 이는 전국 평균 21.7%, 경기도 평균 21%보다 각각 4.4%, 3.7%p 낮은 수치이다. 현재흡연율은 19세 이상 성인 중 평생 5갑(100개) 이상 피웠고 현재도 흡연 중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하남시보건소는 현재흡연율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건강통계' 결과를 분석해 성별, 직업별, 교육 수준별, 소득 수준별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해왔다. 또한 금연 확산을 위해 금연상담사 2명, 금연단속원 2명과 금연지도원 8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금연아파트 27개소, 금연시설 5,923개소, 옥외 공공장소 698개소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질병관리본부장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흡연율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폭넓은 금연사업을 추진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 하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클리닉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하남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031-790-6033, 6925)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이광희 기자

# 연천군, 관내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및 체온계 지원

연천군은 순차적 등교 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관내 학교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지원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열화상 카메라는 학생 수 100명 이상이면서 교육청에서 기 지원받지 못한 4개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체온계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요청한 체온계 총 86개를 전량 지원하였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연천군은 교육청에서 학생 수 500명 이상인 3개 학교(전곡초·중·고)만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여, 학생 수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학교에서는 개학 이후 학생들이 일시에 등교할 경우 체온계로 일일이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예비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4개 학교(연천초·중·고, 화진

연천/김승곤 기자

# 의정부시 미세먼지 신호등 14대 확대 운영 중

의정부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와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미세먼지 농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14개소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의정부역 동부광장 등 권역별 1곳씩 총 4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지난 3월부터 권역동의 설치 장소(15개소)를 추천 받아 유동인구가 많은 녹양역 광장, 열린담근린공원 등 10개소를 선정, 4월말 설치를 완료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도시대기측정망 정보를 색상(파랑-좋음, 녹색-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 이모티콘, 수치로 나타내 대기질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대기오염도 심각 단계 시에는 경고 문구도 함께 표출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

의정부/김승곤 기자

# 용인시,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결의 다져

용인시는 최근 시장실에서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결의 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근한 용인시의회 의장,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 체육회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시와 용인시체육회는 27일 경기도 체육회에 공식 전달할 '유치 신청서'에 공동 서명했다.

용인시의회는 108만 용인시민의 염원을 담은 '유치 지지서'를 채택했다. 시는 신청서 제출 후 3만7천여 석 규모의 시민체육공원을 비롯해 시가 보유한 스포츠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등의 장점을 앞세워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용인/김교연 기자

# 김포시, 집합금지 명령 연장에 따른 지속 점검 실시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지사의 유희시설(유희주점 및 클럽 등) 집합금지 명령 연장과 함께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이 추가됨에 따라 23일부터 6월 7일까지(2주간) 유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57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클럽발 집단 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임에 따라 코

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집합금지 명령 이행에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6월 7일까지 관련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김포/차역문 기자

# 광명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본격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보상 수도권 서남부 대표하는 첨단산업조성

광명시를 경제 자족도시로 만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광명시가 경기도에 신청했던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일 실시계획인가 고 시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2016년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시공사, LH 등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 체결하여 광명시가학동,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원 244만9천㎡에 2024년까지 2조 4천억원을 들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공공주택지구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통단지는 4개 단지 중 하나로, 29만7천㎡(9만평) 규모에 미래 지향적 스마트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 유통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면적 29만 7천㎡ 중 14만1천㎡를 유통시설 용지로, 1만㎡는 지원시설로, 14만5천㎡는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로 설계하여 종전 주택지구 내

에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여건 속에 재해, 재난 등에 노출되어 있는 유통 업체들의 이전 정비해 안정적인 영업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LH는 조만간 보상 절차에 들어가 내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유통단지 이외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올해 중에 일반산업단지는 보상 협의를 거친 뒤 보상을 착수하고, 첨단산업단지는 변경 심의를 거쳐 금년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 후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유통업체의 계획적인 정비로 무분별한 난개발 해소 및 집적화에 따른 산업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하여 우리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광명시가 경제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정재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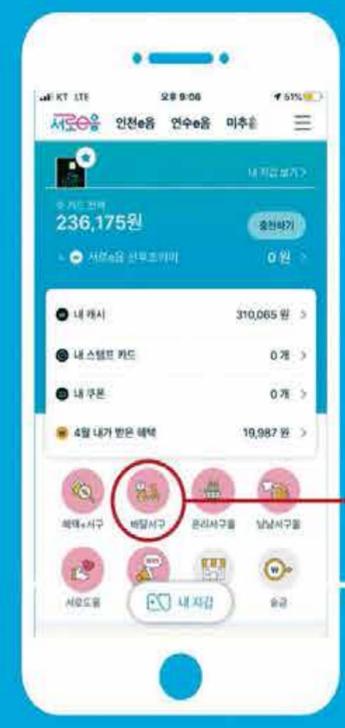
## 착한 소비의 시작!! 전국 첫 공공배달앱 서로e음



# 배달서구

사용자는  
혜택 올리고

소상공인은  
수수료 내리고



※ 서로e음에서 배달서구를 클릭해주세요



인천광역시 서구

# 경북도지사, 경북형 뉴노멀 관광활성화 전략 전국 확산

##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코로나19 이후 관광으로 내수경기 회복 견인 클린&안심 캠페인,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 등 발표, 국민여행주간 운영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전략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비롯한 12개 부처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안영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이은영 유니크닷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해 국내관광 시장 조기 활성화방안과 관광산업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들이 모두 영상으로 연결된 것과 달리 유일하게 회의에 직접 참석해 경북의 관광활성화 방안과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해 색다른 주목을 받았다.

회의를 개최한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침체된 관광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경북도가 17개 시도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철우 지사에게 회의 참석과 활성화 방안 발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먼저 최근 경북 관광객

이 큰 폭으로 감소(3~4월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함에 따라 경북지역 여행업계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최우선적으로 긴급생활비,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의 자금지원과 청년인턴제, 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 등의 일자리 지원을 병행해 피해발생에 대해 긴급 대처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정, 힐링, 안전이라는 뉴노멀 트렌드에 적합하면서 비대면 언택트 관광트렌드에 대응하는 경북만의 차별화된 특수시책들을 소개했다.

경북도는 깨끗하고 청결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매주 금요일 도내 전역에서 '클린&안심 경북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심점식 보급과 복장개선을 통한 '식품화 개선', 좌식 구조의 입식전환과 열린 주방 조성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를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확산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간 집중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도 함께 소개했다.

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국내관광 수요에 맞춰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을 비롯해 경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정도가 심각단계임을 감안해 우선은 '클린&안심 경북캠페인', '#이제다시 경북여행' 등 이미지 개선 캠페인과 함께 온라인을 활용한 개별 여행객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며, 개별 여행객 유치를 위해 도내 공공운영 관광지 183개소 무료개방(일부 입장료 할인)과 함께 국내 최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제휴해 경북지역의 1,500여 숙박업소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티몬, 위메프, G마켓 등에서는 64개의 관광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경북도의 시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하계휴가비 지원사업은 경북으로 휴가를 떠나는 근로자에게는 타 지역과 달리 특별히 10만 원의 추가지원\*이 주어진다.

\*타 지역의 경우 근로자 부담 20만 원을 포함해 총 40만 원의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 경북으로의 휴가는 총 50만 원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음

또한 관광객들의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경북의 대표관광지 100개소를 여행하는 미션투어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기프트콘 등의 경품도 지원한다.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해외여행 관매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실적이 전무해진 경북도내 500여 여행사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 1명당 최대 6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관광활성화 방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적인 내수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매년 10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을여행주간을 올 해는 국민여행주간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가 여행으로 힐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가을여행주간에 대해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직접 손에 잡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행바우처 도입,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동시 개방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히며 자리를 함께한 문체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전국구 예천쪽과 종구,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인기

### 120톤 공급, 병해충 강하고 육질 단단 분얼수가 많고 잎쪽파 수확량도 다수

예천군이 병충해에 강하고 육질이 단단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예천종 쪽파 종구의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하우스 축성재배 종구는 4월 초 수확 후 약 일주일의 건조 과정을 거쳐 잎쪽파 주산지역으로 출하되며, 지난해 80톤 생산량이 올해는 약 40톤 증가한 120톤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예천종 쪽파는 분얼수가 많

아 잎쪽파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종구의 관리가 청결해 전국에 약 60% 이상 종구를 공급할 정도로 잎쪽파 재배 농가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주 출하지역인 예천, 서산 등 재배농가에서는 예천종이 정갈하고 육질이 단단해 공판장 거래 시 잎쪽파 시세가 최고가에 형성되고 있다.

이에 예천군은 쪽파의 작부체계를 9개로 세분화해 정립한 이후 잎쪽파 주산지역에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안정화 시키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예천쪽파는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

으며, 예천군 효자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효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품질의 쪽파종구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가교육과 함께 쪽파에 적합한 미생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연중 소비에 맞는 종구생산 공급체계를 갖추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쪽파는 철분과 비타민 A, C 등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천/장성우 기자

## 교육청,등교수업 현장 지원단 운영

경북교육청은 최근 순차적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예방과 안정적인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등교수업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등교수업 현장 지원단은 도내 고등학교는 경북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중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자로 지정해 운영한다.

주요 활동은 교실 입실 전 학생과 전 교직원원의 발열 체크, 건강 점검 지원, 쉬는 시간 중 실내 생활지도 지원, 급식 전 추가 발열조사 지원, 기숙사 입소학생 관리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 감염병 예방 업무를 지원한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경주시, 2020년 농업대학 142명 대상 교육

### 지역 농업 농촌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 방역계획수립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경주농업대학' 교육을 농업인회관 대연수관에서 26일 귀농귀촌과정 첫 수업을 시작으로 3개 과정(귀농귀촌, 농업경영마케팅, 전통발효식품) 142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적극 대응으로 전체 입학식은 별도로 하지 않고 1인용 책상 비치, 바닥에 줄 서기 간격 표시, 손소독제 비치, 농업인회관 방역계획 수립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철저를 기했다.

교육생들은 1층에서 마스크 착용 확인, 체온측정, 손소독 이후에 건강문진표를 제출하고 2층 강의실로 입장하게 되며 수업은 생활 속 거리두



기 지침을 준수해 이뤄진다.

귀농귀촌 과정(매주 화요일)은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작물 재배기술 기초를 농업경영마케팅 과정(매주 수요일)은 농업경영, 유튜브, 블로그, SNS활용 마케팅을, 그리고 전통발효식품 과정(매주 목요일)은 전통발효 기초 이론과 장류, 절임, 식초 등 실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주/한반식 기자

## 대구시, 고용친화기업제도 대대적 개편 새롭게 출발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사민정 전문가와 시민,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친화기업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다음달 25일까지 개편된 고용친화기업 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대구시는 '일자리로 이어지는 혁신성장'과 '지역 청년인재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신규 고용친화기업 5개사, 2016~2017년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인증 기업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27일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6.23~25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그동안 대구시와 사업 수행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는 본 사업을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발굴, 현재까지 56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근속연수도 평균 10개월이 증가하는 등 대구지역의 일자리 해소와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구/권대순 기자

## 문경사랑상품권 4장 지류상품권 내달 1일부터 판매



### 6.1~30일 출시기념 특별할인 10% 지역경제에 보탬 되고 활성화 기대

문경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발전과 지역자원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문경사랑상품권은 1천 원권, 2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4종의 지류상품권으로 발행되며 1천 원권과 2천 원권은 단산모노레일과 문경새재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해 2차 소비를 유도하게 한다. 5천 원권과 1만 원권은 문경시민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관내 금융기관(각 농협, 대구은행, 축협,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한다. 1인 구매한도는 월40만 원(연 400만 원)이며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상품권 사용은 전통시장 뿐만 아니

라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70%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가맹점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환전신청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며, 환전 금액 신청은 매일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가맹점에서 상품대금 결제 2차, 3차 지역 내에서 재유통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며 지역화폐 발행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고효한 문경시장은 "시 개편 이래 처음으로 출시되는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 이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경/장성우 기자

## 경주시, ITS 구축으로 도로교통여건 개선 박차

### 모든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정보센터와 연결 돌발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 가능해져

경주시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지능형교통시스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진행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이 6월 완공을 앞두고 시험운행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선7기공약사업인 경주시 ITS 구축사업은 현재 노동공영주차장에 노면센서를 통한 주차정보시스템(PIS)을 구축해 실시간 주차가능대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시내권역의 모든 교통신호제어기를 교통정보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 교통정보수집 장치로 확인된 지·정체 또는 돌발 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대체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강변로, 용담로, 금성로, 산업로, 태종로 및 의동구간의 교차로 혼잡도를 분석해 신호주기최적화를 진행함으로써 교통흐름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2020년 경주시



ITS 구축사업이 6월 착수를 목표로 주요 공영주차장에 PIS를 확대 구축하고 세분화된 교통량 측정을 위한 스마트교차로관제 시스템 도입 등 교통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무 교통행정과장은 금번 ITS 구축사업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 최적의 교통 경을 제공코자 하며, 특히 28일부터 진행되는 신호주기최적화 기간에 교차로 내 예측출발 등 사고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 문경돌리네습지 '친환경 손모내기 행사' 개최

### 기존 농지에 친환경농법으로 농사 지어 논습지 조성하기, 돌리네마을에서 주관

문경시는 문경돌리네습지에서 최근 '문경돌리네습지 친환경 손모내기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경돌리네습지 기존 농지에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논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지방환경청·문경시 지원으로 영농조합법인 돌리네마을에서 주관했다. 행사에 참여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등은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습지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은 서툰지만 일벌로 서서 하나하나 정성들여 모내기를 했으며, 수확물은 겨울철새먹이, 사료복지단체 기증 및 홍보물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농조합법인 돌리네마을을 대표 박정숙은 "오



늘과 같은 손모내기 행사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앞으로 있을 잡초 제거, 추수 등 특정한 시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생태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돌리네습지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1단계)과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장성우 기자

## 경남소방 "소방차 물 없어도 걱정NO!"

### 진주, 김해동부소방서 시범 도입 지하주차장-터널 화재 효과 기대

경남 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가 질식소화 효과를 이용한 최신진압장비를 도입해, 차량화재 시 소화수 걱정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기존 소화수 불을 끄는 대응기술에서 벗어나 질식소화됐개인 최신 진압장비를 통해 불을 끌 수 있게 된 것이다.

경남소방본부는 26일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질식소화 진압장비를 이용한 실제 차량화재 진압 시연회를 열고 이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26일 의령군 소재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도내 화재진압대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시연회는 질식소화덮개를 이용한 최신 화재대응 기술 연수로 진행됐다. 실물화재 재현을 위해 차량에 불을 붙여 최상기(약1,200℃)때 발열과 연기가 분출하는 차량에 질식소화덮개로 감싸 덮여 화재의 3요소(가연물+점화원+산소) 중 산소를 차단해 질식소화로 화재를 진압하는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이런 질식소화덮개를 이용한 진압작업은 지하주차장-터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등에 효과가 뛰어나고, 전기차-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같은 전기화재 시 물을 사용한 냉각소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 연기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화재진압 방법이기도 하다.

자동차 화재의 특성은 연료(가솔린, 경유, LPG, 수소, 전기)와 가연성 내장재의 연소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연료의 종류에 따라 폭발·감전의 위험이 높다. 또 터널이나 주



차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인접 차량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킨다.

지금까지 화재진압방법은 소화수와 포(foam) 소화약제를 활용한 전통적인 냉각소화 방법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차량화재 문제점과 진압방법 개선을 위해, 유럽에서 전기차 등의 차량화재 시에 사용하고 있는 질식소화효과를 이용한 진압방법에 주목하고 우리 도에 시범 도입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2019년 말 기준 우리도 내 친환경차(전기+수소) 약 2,500대가 운행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도내 차량화재가 많은 진주와 김해동부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현장에서 기존 소화수로 진압하는 방식보다 질식소화덮개를 활용한 화재진압의 효율성이 입증되면 시·군 전 소방서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우리 도내 차량등록현황은 약 170만대로, 최근 3년간 차량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약 316건이 발생, 전체 화재건수 대비 약 11%를 차지했으며 매년 차량화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전국 최초 시외-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 모델

### 사천터미널에서 협약식... 도지사, 진주·사천시장 서명, 회당 1,450원 할인... 한 달 왕복 이용시 63,800원 절감

경남의 서부권 거점도시인 진주시와 사천시가 '경남형 광역환승할인제' 도입한다.

최근 사천터미널에서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체결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과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버스운수업, 교통카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체계 구축에 이은 두 번째 도내 동일생활권 지역 간 환승 협약이다. 특히 양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시내버스' 간의 환승체계 구축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 진주-사천 시민 모두가 두 지역 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후승(두 번째 탑승) 버스요금에서 1,450원(시내버스 기본요금)의 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진주시의 경우 기존에는 시내버스 환승 시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진주-사천을 잇는 시외버스 환승 시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사천시 또한 이번 광역환승을 시

작으로 시내버스 환승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사천시는 경남 서부권의 중심도시로 상호 협력가능한 동일 경제생활권이며, 작년 기준 두 지역 간 시외버스 통행 이용자는 연간 98만 명, 일일 2,700여 명이 양 지역을 통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 내 시·군간 통행량으로는 창원-김해 간에 이어 가장 많은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으로 '진주-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 출·퇴근, 통학 등 정기적으로 두 지역을 통행하는 이용자는 월 63,800원(월 4회 이용시)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인적교류가 활성화되고, 승용차량의 도심 진입량이 줄어들어 교통체증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등 사회·환경적 효과도 기대된다.

진주-사천 간 환승체계 구축'은 올해 경남도정의 3대 핵심과제인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의 큰 틀 속에서 동부권에 비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권의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남해안 권 인접 시·군과 연계 순환 교통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도 의



미가 있다.

이번 협약은 작년 7월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의 관련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통행량·환승패턴 분석과 이용주민-운송사업자 모두가 상생하는 환승모델을 개발해 '전국 최초 시외-시내버스 간 환승할인체계를 마련하면서 이뤄졌다.

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과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남도가 30%를, 진주와 사천시가 70%를 부담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수 지사는 "진주와 사천은 같은 생활권역으로

서부경남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지역 경제권"이라며 "광역환승할인을 계기로 대중교통과, 광역교통망 등 교통복지뿐 아니라 관광과 산업까지 함께 힘을 합해 경남발전의 중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와 사천의 교통카드 사업자인 ㈜마이비(대표이사 이근재)는 오는 6월부터 시외-시내버스 간 교통카드 환승결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9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 달간의 시범운영으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올해 11월부터 환승할인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 거제시, 코로나19극복 착한 선결제 챌린지 추진

### 거제시나다운 회원과 선결제 캠페인 착한 선결제로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거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희망을 주기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착한 선결제란 지역 음식점, 동네 가게 등에 소비자가 미리 대금을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캠페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타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변광용 시장은 25일, 확진자가 방문한 연초면 소재 한 음식점에서 거제시 나부티다함께시민운동본부(본부장 유형식)와 오찬을 가진 뒤 착한 선결제 챌린지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변 시장은 "지금은 노아의 방주를 여러 개 만들어 우리 시민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착한 선결제 챌린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음식점 신원정 대표 내외는 "5월 8일 확진자 방문 후 구입 해 놓은 장어 500kg이 폐사하는 등 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막대한 심정이었는데, 이렇게 시장남께서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니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변광용 시장은 다음 대상으로 거제시 체육회(회장 김환중)와 나다운(본부장 유형식)을 지목하였으며, 나다운 회원들은 관내 확진자가 방문한 인근의 식당을 찾아 선결제 챌린지를 이어나갔다.

거제시 나다운 유형식 본부장은 "앞으로도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밴드 공지,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착한 선결제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착한 마음이 선결제 챌린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5월 8일 확진자 방문 후 구입 해 놓은 장어 500kg이 폐사하는 등 1,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막대한 심정이었는데, 이렇게 시장남께서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니

거제/김영찬 기자

## 부산시, 기초생활수급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산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1인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한다!

부산시·(재)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 기초생활수급 가정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검정고시 준비 학교 밖 청소년 3,000명에게 교통비 3억 원 지원 ◆ 청소년들 학업 및 여가활동 장려, 실질적 혜택 제공... 교통비 지원 전후('18년 대비) 검정고시 응시 인원 136% 증가했다.

부산시가 (재)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이하 시민기금)과 코로나19에 지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시민기금과 내일(27일) 오후 3시 시청 회의실에서 '교통비 지원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인 기초생활수급 청소년과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총 3천 명으로 구·군과 부산시 내 17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를 지원한다.

시민기금은 지난 2016년 11월 설립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대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대중교통 Big Back 이벤트와 ▲임산부 보호를 위한 경전철 핑크라이트 사업 ▲부산마린버스 사업 등을 비롯해 지난해부터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3억 원을 지원해왔다.

부산시는 이번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업과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지난해 교통카드를 지원하면서 2016년 310명, 2017년 464명, 2018년 459명으로 3년간 평균 411명에 그쳤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625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그중 94%인 589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 허성곤 김해시장, 공약 이행 2년 연속 전국 최고

김해시는 공약 이행 최고상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2년 연속 획득하는 저력을 보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에 따르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도내에서는 2곳(김해, 창원)이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전국 226개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월부터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전국시군 공약이행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 등 공약자료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2019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지도 등 5개 지표로, 1·2차

평가와 자료 검증을 통해 5개 등급(SA, A, B, C, D)으로 분류했다

민선7기 공약은 ▲일자리 경제도시 ▲가야문화 교육도시 ▲희망 복지도시 ▲친환경 미래도시로 4대 분야 161개 공약을 담았다.

주요 공약에는 ▲전국체전 유치 ▲의생명 강소연구특구 지정 ▲스마트부품센서산업 육성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국립자연휴양림 및 체험나눔교육숙 조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대통령 기념관 건립 ▲동부치매안심센터 건립 ▲장유여객터미널 및 신월역 건립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 밀착 소통과 다양한 공감행정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가야왕도 김해의 도시 가치를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61개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영도 기자

## 부산시, 클럽 형태 유흥시설 집합금지 1주일 연장

###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1주일 연장 타시도 집합금지 연장 따른 풍선포화

부산시가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클럽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26일부터 12시(정오)부터 6월 2일 12시(정오)까지 연장한다.

부산시는 최근 SNS를 통한 유흥시설 이용자들의 부산지역 방문이 늘어나고, 타 시도의 집합금지 연장에 따른 풍선포화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아이들의 등교 시점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는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시는 앞으로 일주일동안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23:00~익일 03:00)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특히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만큼,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방역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여러분,  
 밤잠을 줄여가며 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공무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과 마음을 전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 보성군, 녹차 추출물로 식용 탈취제 개발 성공

## 식용 탈취제, 녹차 마스크 필터 개발 기술 이전 준비

### 고기나 생선 누린내와 비린내 잡아주는 식용 탈취제

보성군은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김동복)과 용역을 통해 녹차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탈취 제품(차연무)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차연무'는 녹차 추출물을 활용해 고기나 생선의 누린내와 비린내를 잡아주는 식용 탈취제이며 녹차의 마른잎에서 '무용매 진공추출법'으로 추출해 성분의 활성도가 높다.

보성군은 천연 탈취제뿐만 아니라 차(茶)의 항균 성분을 이용한 마스크 필터 개발에도 성공했다. 군은 해당 제품들이 시장에서 유통 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제품 출시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용역을 수행한 남부대학교 박상규 교수는 "녹차 추출물은 약취의 주원인인 염기성과 산성의 냄새를 동시

에 제거 할 수 있는 안전한 천연 탈취제이며,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생성 억제에 비롯해 산패방지 등에서 68.71%의 결과치를 보이며 높은 항산화 기능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보성군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을 물에 10배 희석해 5분간 집지한 양고기는 누린내 탈취효과가 뛰어나 전체적인 기호도가 88%이상 상승했다. 또한, 고기의 신선도 지표가 되는 휘발성 염기질소를 비롯한, 트리메틸아민, 과산화물가, 산가, 산패도(TBARS) 값이 22~51%까지 감소하는 성적이 나와 이번 천연 탈취제가 냄새뿐만 아니라 재료의 신선도 유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마



시는 음료를 비롯해 생필품과 식품, 의약품까지 차 연관 산업이 확장되고, 소비자가 확대되어 차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개발된 차 관련 기능성 제품들이 실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산화, 항염, 항균효과가 탁월한 차(茶)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보성/김정필 기자

# 전주사람 자긍심 프로젝트 'UP', 창의력도 '쑥쑥'

## '야호학교 전주사람 프로젝트' 추진 전주의 역사 지명 소재로 콘텐츠 제작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주사람이라는 자긍심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나선다.

전주시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전주에 대해 배우고 자기주도 역량 기를 수 있도록 '야호학교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스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이다.

이번 전주사람 프로젝트는 청소년

들이 전주의 정신·문화·관광지·역사·예술 등 전주의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지역에 대해 알아가고, 기초 학습 능력을 높이고, 전주를 소재로 스토리가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해보는 활동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12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한 19명의 야호학교 코칭단과 함께 신홍중학교 등 5개 학교와 평화도서관에서 '전주사람 프로젝트 활동지'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된다.

전주사람 프로젝트 활동지는 교육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기획단이 제작한 것으로 △전주정신 '꽃심' △전통음식·한옥·한지·부채 등 전주문화 △한옥마을·덕진공원 등 전주 관광지 △전주의 역사와 지명 등 전주와 관련된 4가지의 훈련항목

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자긍심을 갖고, 창의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나 한시 및 창작 수공예 프로젝트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역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전주사람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발굴,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 영광, 귀농귀촌 청년창업대상수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장에서 귀농귀촌 청년창업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도시민 농촌 유지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창하였으며 영광군은 체계적인 상담과 정착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며 지역민과의 화합을 이끌어 성공적인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202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연합뉴스 주관으로 6차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창조농업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영광/노경태 기자

# 화순군, 배우는 현장 교육으로 귀농인 지원

##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추진. 멘토-멘티 6개 팀 운영한다

화순군이 귀농인의 농업·농촌 경험을 쌓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농업인(귀농) 현장실습 교육은 선도농가와 귀농인 간 일대일 멘토-멘티 약정을 맺고 현장 중심의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농업 창업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과 체험을 추진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화순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신규 농업인·멘티)과 지역 선도농가(멘토)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6개 팀을 선정해 지난 3월 팀별로 멘토-멘티 연수 약정을 맺었다. 현장실습 교육은 4월부터 선도농가 영농 현장에서 시작됐다.

연수 주요 작목은 고추, 딸기, 복령, 당근, 한우, 수도작으로 영농 현장에서 5개월간 진행돼 귀농인의 영농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귀농 연수생은 "실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귀농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귀농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우고 실습장에서 실습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이며 다년간 딸기 재배에 노하우가 있는 선배 농업인에게 배울 수 있어 딸기 재배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의 농업 창업 꿈을 위해 배우고 체험하는 다양한 귀농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이윤상 기자

#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요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로도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카드 사용 불가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44대 중 43대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마쳤다. 다만, LH전북지역본부 내에 설치된 1대는 발급기 내부 공간 문제로 단말기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으나 향후 보완해 시민들의 민원 편의

를 제공키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됨에 따라 시민들은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발급서류 중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범원행정처와 행정안전부가 협의의 중에 있어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향후 시는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종류를 더욱 확대하고 운영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전주/이재만 기자

#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 검정고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영암군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검정고시를 치르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섰다.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최근 실시된 2020년 제1차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방역용품 및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간편식(비대면) 지원, 교재 제공 및 도서관 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검정고시 일정이 몇 차례 연기되는 등 예년과

다른 환경에 적응이 필요했던 청소년들에게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영암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만9세부터 24세까지 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개인 사정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취업·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지원과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이영석 기자

# 문경시, 기숙사 입소생 전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개학 앞두고 긴장감 속 검사 고3 전원 음성 결과 나와

문경시는 관내 고등학교 6개소의 기숙사 입소생 335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중이다.

개학 및 기숙사 입소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 20일 개학했고, 고등학교 2학년은 5월 27일, 고등학교 1학년은 6월 3일 등교 예정이다. 학년별 개학 일정이 다름에 따라 5월 24일 고등학교 3학년 기숙사 입소생 12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친 상황이며, 또 25일에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6월 1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입소생 125명은 전원 음성 결과를 받았으며, 나



머지 210명의 학생은 진단 검사를 앞두고 있다. 기숙사 입소생은 매일 2회(아침식사 전, 수업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 발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방문자의 숙소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해 증상을 재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진료·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경/백승두 기자



## 21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섬 발전협의회 공동성명 받아

권오봉 여수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지지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성명서에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섬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오봉, 보령시장 등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회원 10개 시장 군수가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이며, 섬은 해양 관광개발 거점은 물론 해양 생태자원의 보고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는 365개의 보석

같은 섬을 자원으로 돌산에서 고흥을 잇는 11개의 다리가 완성되는 2026년에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열 예정"이라며 "협의회는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여수시, 웅진군, 보령시 등 회원 10개 시·군 단체장 등을 비롯해 주철현(전남 여수시장), 김희재(전남 여수시), 김병욱(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배준영(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유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명의 국회의원 당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6월 중 섬 발전협의회 회원 10개 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개최지지 공동성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한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전남 여수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웅진군, 충남 보령시 등 10개 시군으로 구성돼 섬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및 제안, 전략적인 홍보사업 추진 등 섬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여수/김성민 기자

# 구례오산사성암 명승지정 해제 추진위원회 출범

##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본격 활동 전개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는 최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0년 제1차 회의를 열어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를 구성하고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김성수 위원장과 각 읍면을 대표하는 8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총 31명의 임원진을 구성했다.

오산 사성암은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에 소재한 오산(해발 522m)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산과 삼천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빼어난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문화재청은 2014년 8월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을 국가지정 명승 제111호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반경 500m 이내의 땅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삼천강과 오산을 활용한 지역 균형발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개발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명승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문척면 김영현 이장은 "명승지정 추진 시 주민공청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문척면은 기존의 수탈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사성암까지 명승지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6월 말까지 군민과 출향 향우, 관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문화재청,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명승지 해제 추진운동을 통해 우리 군민들이 힘을 모아 균형발전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김윤석 기자

# 담양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 '박차'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 악화를 막고 치매환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1년에 1회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선별검사와 인지저하로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병원에서 정밀진단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에 따라 진단검사비 및 감별 검사비도 지원한다.

르신 17,910명중 5,996명에 대해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고위험군 530명을 발굴해 치료를 연계한 바 있다.

이번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측정 및 마스크 착용 후 시행하며 검사 후에는 코로나19 생활수칙도 교육할 예정이다.

김순복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에 예방은 초기 단계에 발견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기검진과 지속적인 관리 등 다양한 치매 예방사업을 통해 치매적응 없는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김윤석 기자

# 여수시·여수상의, “산단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행”

여수국가산단·오천산업단지6개 노선, 통근버스 9대 운행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선정, 국비 13억5천만 지원



여수시(시장 권오봉)와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가 손잡고 산단 근로자를 위한 무료 통근버스를 운

행함에 따라 근로자의 교통편의와 주거환경이 확 개선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와 오천산업단지의 중소기업과 플랜트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 노선에 무료 통근버스 45인승 9대를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대 규모인 3년간 국비 1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여수국가산단은 2025년까지 9조5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연이용객은 15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이 3개 노선 6대이며, 삼일중학교 앞, 이순신 광장, 여서문수 로터리에서 오전 6시와 7시에 각각 1·2호차가 출발한다. 오천산단은 3개 노선으로, 신월 금호타운 아파트, 문수주공 아파트, 삼일중학교 앞에서 오전 6시 50분에서 7시에 출발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여수시와 여

수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오천산업단지 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운행관리를 맡은 여수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에 방문해 수요를 파악하고, 운행노선 등 근로자 이용편의를 위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는 통근버스 시험 운행과 이용 캠페인도 실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행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통근버스 이용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한다”고 밝히며, “버스 손잡이 등에 대해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성면 기자

# 담양군과 함께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 본능!

금연클리닉, 금연지도원 제도  
금연 분위기 조성 앞장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오는 31일 '제 33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흡연자에게 6개월 금연 성공 프로그램, 금연 유지자 대상 종양표지자 검사, 행동강화 물품 제공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금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군민에게 금연의 유익함을 알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금연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의 대상자에게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수시 운

행한다. 또한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여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규범 확산 및 강화에 힘쓰고 김순복 보건소장은 “금연성공에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김용락 기자

# 무안군, 관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 21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무안군은 종교시설 집회·집합 제한 행정명령('20.3.21.)으로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였던 종교시설들이 집회활동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 따라 종교시설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청자격은 2020.3.21.이전부터 관내에서 운영 중인 종교시설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종교단체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무안군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 후 팩스(450-5126)로 송부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2~3일 서류 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무안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동참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에도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판국 기자

# 장흥군,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개강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전략 소개  
“귀농인 안정적 정착 위해 지원할 것”

장흥군(군수 정준승)은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6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설된 교육은 이론 및 현장 학습을 겸한 맞춤형 교육이다.

5월부터 9월까지 기초교육, 과수 및 채소, 식량작물, 특용작물, 농기

계, 정보화교육, 농산물 가공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준승 군수는 “귀농 희망자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생간 거리두기,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확인, 소독 실시 등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 진행 후 개강식을 진행했다.

장흥/김종현 기자

# 전동평 영암군수, 공약이행 평가 전국 최고등급

민선7기 공약평가에서 전국 최고  
약속 가장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

영암군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에 선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7기 기초단체장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 및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등의 항목에 대해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26개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정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 대해 분석한 1차 평가와 지적사항에 대한 지자체 소명자료 평가 등 2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 발표하였다.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지도 분야(Pass/Fail) 등 5대 분야를 종합 평가해 5단계(SA, A, B, C, D)로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 군은 5개 평가항목의 합산 총점이 65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에 선정됐다.

군은 민선7기 '군민이 희망이다'라는 모토 아래, 조금 더 군민의 의

견을 반영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약사업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군민 및 향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된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단'의 회의를 거쳐 25건의 공약조정 적정여부를 심의하였다.

영암군 민선7기 공약사업은 군민 대화합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일등 영암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업 15개사업 ▲일자리 창출과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4개사업 ▲생명산업과 최첨단 농업 선도 14개사업 ▲자동차튜닝·항공산업 활성화 4개사업 ▲역사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7개사업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영암 만들기 8개사업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균형발전 6개사업 등 7개분야 5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민선7기 공약평가에서 최고등급(SA) 선정에 이어, 민선7기 공약사업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전국 최고등급(SA)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영석 기자

# 영암군,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

영암군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영암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분청 민원안내실, 읍·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고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 기관 소식지 및 반사회보 등을 통한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우리 지역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 사라지지 않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하여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영암/이영석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www.guryelocalmarket.com  
구매 문의 ☎ 061)780-8294

# “재난기본소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 위해서주세요”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8월 31일까지 나눔캠페인 전개 사회복지법인 죽파재단 감천장요양원·양로원 직원, 500만 원 기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수원시에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시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죽파재단 감천장요양원·양로원 전 직원은 500만 원을 기부했다. 박진희 감천장요양원장, 김연주 감천장양로원장은 5월 2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 달라”며 염태영 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요양원·양로원 직원 60여 명이 재난기본소득을 자발적으로 기부했고, 운영법인(사회복지법인 죽파재단)도 일부를 지원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도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5월 20일 수원시청을 찾아 서경보 복지여성국장에게 직원들이 모금한 112만 원을 전달했다. 112만 원은 아동학대 신고전화 번호 ‘112’를 의미한다.

지난 15일에는 수원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4명이 수원시청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와 달라”며 각각 5만 원을 기부했다.

정00 어르신은 “코로나19로 많은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수원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사정이 낫다”며 “재난기본소득 기부캠페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8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다. 5월 26일 0시 기준 모금액은 5억 824만 원(2336건)이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농협 317-0003-8354-31, 예금주 : 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하거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수원/김승곤 기자

## 양평군 개군면 장학회, 장학증서 전달

경기 양평군 개군면 장학회는 개군면 주민자치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2020년 개군면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은 이경구 개군면 장학회 위원장(개군면장)을 비롯한 개군면 내 기관·단체장, 장학생 학부모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장학회는 개군면 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의 대학생 자녀중 신입생 전원, 성적우수 재학생 등 19명에게 18백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개군면 장학회는 미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한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를 적립하여 2011년까지 총 10억 7천 2백만 원을 적립하였고, 2012년 개군면 장학회를 설립한 후 장학금 10억 원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대학생 273명에게 2억 7천 4백 8십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양평/이근학 기자

## 365플러스 내과, 하남시에 지원 물품 기탁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 소재한 365플러스 내과는 최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방역 마스크, 라면, 찜질팩 등 37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극복지원 물품을 하남시에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해 365플러스 내과 유정선 대표원장, 김진우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유정선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응원의 뜻을 모아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물품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 받은 방역 마스크 1,000매, 라면 50박스, 찜질팩 150개 등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긴급지원대상자, 코로나 여파로 외출이 어려워진 저소득 어르신,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남/이광희 기자

## 양평공사,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한 ‘사랑 헌혈행사’

지방공기업 양평공사(사장 박윤희)는 지난 25일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개학 연기로 헌혈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적정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이르는 등 혈액 수급 위기가 빚어지자 이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공사 직원 27명은 공사 주차장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에 올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공사는 헌혈 전 사전 방역,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헌혈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



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의 기쁨은 배가 된다. 작은 정성으로 큰 생명을 살리는 헌혈 활동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7년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MOU 체결 후 4년째 매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의 헌혈증을 모아 기부하는 등 헌혈문화 확산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양평/이근학 기자

##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기부 릴레이

경기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영대)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릴레이에 동참해 ‘김포복지재단’에 400만 원 상당의 소독제·식료품 기부와 함께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영대) 회원사가 참석한 이날 협약식 김영대 대표는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겨워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합원들과 뜻을 모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증된 물품은 협동조합 회원사인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생산물품으로 농업법인 김포농식품(주)(대표 배효원)의 김치(2kg, 100박스), ㈜사부코리아(대표 김우태)의 손소독제, 마을기업 과수원길협동조합(대표 윤효정)의 포도즙으로 ㈜예일문화사, (주)협신물산,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원사회적협동조합, 농업법인 김포농식품(주) 등에서 보내온 기금을 매칭해 제작 기증했다.

2019년 2월 고용노동부 인가를 통



해 설립된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영대)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통 및 공공구매, 상호거래 활성화를 촉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협동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9개소로 구성된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인근경 주민복지담당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돕고 보여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절실한 마음이 모두에게 전달돼 퍼진다면 이 위기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포/차명륜 기자

## 자산그룹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트럭 1대 기탁

경기 용인시는 최근 관내 기업인 자산그룹이 수지구 상현동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트럭 1대를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트럭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과 긴급구호물품 등을 전달하는 데 쓰이게 된다.

한주식 자산그룹 회장은 “취약계층 가정의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차량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돕는 데 앞장 서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산그룹이 이웃을 위해 큰 기부를 해줘 감사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해 더불어 사는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그룹은 지난 2010년부터



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후원하고, 지난해엔 관내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인 생명의 집에 차량 1대를 기탁한 바 있다.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가족 문제를 예방하도록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서비스 기관이다.

용인/유기영 기자

## 평택남부노인복지관, 바자회 성금 기탁

경기 평택시 비전2동 소재 평택남부노인복지관은 최근 ‘재미삼아해봄! 프리마켓’ 진행을 추진했다.

이날 진행 된 판매수익금 전액 55만 원을 비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6일 기탁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르신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 할 예정이다.

고은자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관된 남부복지타운에서 입주기관의 직원들과 함께 자원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판매수익금으로 관내 어려운 조손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유기영 기자

오중근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우리 주변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오장수 비전2동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봉사해주시는 평택남부노인복지관 직원분들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비전2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유기영 기자

## 안산시 공직자, 장애인시설에 성금 전달

관내 3개 장애인시설에 600만원 전달 “코로나19 위기상황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경기 안산시는 최근 공직자들이 모은 성금 600만원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3월부터 안산시 공직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한 모인 것으로, 윤희화 시장과 관계 직원은 지난 12일 유유한센터,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방문해 성금 250만원을 후원한데 이어 두 번째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부분에 위치한 어린이양육집, 동근세상, 실비동근세상 등 3개 시설로,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병에 훨씬 취약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수칙을 지켜야 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김대성 기자

성금을 전달받은 시설장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만큼 후원자들의 도움이 크게 줄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비상근무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분들과 시장님께 고맙다”고 말했다.

윤희화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과 생활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공직자 성금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해당 시설로 지정 기탁돼 시설 이용자의 처우개선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활동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청공회청년봉사단,순천시지역아동센터에 에어컨기탁

전남 순천시에서는 청년봉사단 청공회로부터 순천시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용 에어컨을 기탁 받았다고 28일 전했다.

순천시 청공회 청년봉사단의 냉·난방비용 에어컨 전달은 울여름 폭염대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나눔과 사랑으로 다 함께 여름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청공회 봉사단은 평소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뿐만 아니라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운영, 질서유지 봉사 지원 및 연탄지원, 신발장 만들어주기, 쌀 기부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서 활발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청공회 봉사단 허경환 회장은 이날 기탁행사에서 “이번 나눔이 자라나는 아동에게 나눔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아동들에게 더 많은 관



심과 사랑으로 실천하는 돌봄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청공회 봉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최종기 대기자

## 한국세라믹기술원 행복한 동행 사랑의 이불 기탁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본원(분원장 이성민)은 최근 이천시(시장 엄태준) 행복한 동행에 이불 31채(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본원 본원장(이성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게 되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이불이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본원은 현재 이천 신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30여명의 직원들이 봉사 및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시에



서도 다가가 여름을 대비해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이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천/유기영 기자

## 대한적십자사 회룡봉사회 사랑의 나눔 실천

대한적십자사 회룡봉사회는 최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윤교찬)에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을 위해 쌀 800kg과 건어물 80상자를 전달했다.

1993년 창단된 회룡봉사회는 매년 저소득 가정을 주선 청공회 봉사단 등 선물꾸러미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후원 물품은 코로나 19 대응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탁하였다.

차상운 회룡봉사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고 조속히 원은옥 복지지원과장은 “대한적십자사 회룡봉사회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리며 저소득층분들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잘 전달하여 드리겠다.”라고 하였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경제 칼럼

# 일하는 '21대 경제국회' 간절히 소망



▲문기주 대표회장

●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한 지 72주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정식으로 5월 30일 시작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한 지 72주년이고, 국회의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101주년을 맞게 된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국면에서 치른 한국의 총선은 전 세계 외신들도 의외적 대응만큼이나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도 66.2%라는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을 놀라게 했다.

투표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은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보다는 발목잡기로만 일관해온 야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더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일하는 국회' 부분에서 4가지 사항을 공약했다. ▲국회운영 상시화와 법사위 개혁으로 법안 신속처리 유도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으로 국민 입법참여 실질 보장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이다.

● '역대 최악' 20대 국회 답습말아야

그러나 이처럼, 제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차일피일 시간 끌기에만 몰두한다면, 제20대 국회와는 다를 바 없다는 오명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러 모로 '역대 최악'이라는 낙제 점수를 받았다. 4년 회기 전체 법안 처리율이 사상 최저치였던 19대 때 (41.7%)에도 못 미치는

36.5%에 불과했다. 속히 입법해야 할 민생법안을 심의할 때는 '식물국회'나 다름없었다.

지난 5월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20대 국회는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법 등 법안 133개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보다 못지않게 시급한 민생 안건을 포함한 법안 1만 5,000여건은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한 것은 대단한 유감이다.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와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 제정 31년 만에 처음 추진된 전면적인 개정안이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인력 지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강화 등 지방분권 방안이 담겨있었다.

지난 제20대 국회는 협치가 필수인 다당제로 출발했지만 여와야,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갇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었고, 협치와 상호존중이 실종된 꼼수가 난무했으며, 정치공방과 남탓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 21대! 여당 1호 법안 '일하는 국회'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지만 '법안 처리의 속도와 밀도'와 관련된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정기회가 아닌 달의 1일에 임시회 소집 의무화 ▽ 상임위 정례회의 개최 의무화, 법안 심사 소위 매월 4회 이상 개최 ▽ 신속처리대상 안건 상임위 심사시간 45일, 본회의 처리 45일로 축소 ▽ 법사위 체계 자기심사권 폐지 ▽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 안건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만 매달려 법안 심의에 시간을 제대로 쏟지 않는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고 타파하는데 주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의제는 '상임위·소위 개최 강제화와 법사위 개혁'이다. 여기에서도 좀 더 범주를 좁히자면, 법사위의 '체계 자기심사권' 폐지다.

이는 의회에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던 제헌 국회 시절부터 법률안의 법적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법사위에서 법안의 법적 체계와 용어, 표현 등을 심사하도록 한 제도가 마치 상임위에서의 결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과도한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법사위가 말 그대로 체계와 자구만 심사해왔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까지 법사위는 법안의 내용까지 따지며 법안을 재심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왔다.

여당은 국회사무처 별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와 자구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여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여당이 거대의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제도이다.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의무 처리 기간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로 정하여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돼도 처리 기간이 최장 330일에 이르는, 전혀 신속하지 않은 제도였다.

여당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상임위 45일, 본회의 45일로 길어야 90일 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 '청렴결백' 선진국가 진입에 초석을

4년 임기의 21대 국회의원들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는 개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서'를 할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할 여야의원 300명 가운데 국회에 첫 입성하

는 조선의원 수가 절반을 넘긴 151명에 이른다.

최우선 순위로 무엇보다 청렴해야 할 것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법 제46조에 명시돼 있는 '국회의원 의무'에 해당하는 핵심 항목이다.

정치권 곳곳에서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노력에 나설 준비를 갖추는 모습이다.

이에 응당 '과학기술 기반의 복지국가'에 심혈을 쏟아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의 여야간 선의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적절한 시기에 얼마나 구축하느냐에 달렸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고 혁신 기업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 규모의 경제 못지않게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한 선진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대면·빅데이터·바이오와 같은 미래산업과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도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상상과 협력의 정치는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 위에서 협치가 완성돼야 한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여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국회는 첫걸음부터 심기일전해야 한다.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단계에서부터 살바싸움을 하던 구태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거여소야' 구도인 21대 국회는 일방적 주장 대신 상대로 경쟁하면서 차원 높은 협치의 민주주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 사설

### 정치공세로 본질 흐려선 안 될 '윤미향 사건'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5일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과상도 의원은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도 현금으로 구매하기 힘든데 윤 당선인 가족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채의 집을 모두 현금으로 샀다"며 검찰의 자금출처 수사를 요구했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차 기자회견에서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친여권 인사들의 할머니 기자회견 편파 발언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방송인 김여준씨는 "회견문을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는 모금한 돈으로 개인이 밥을 먹지 하면 지출할 수 없는 구조" "윤 당선인에 대한 가혹한 잣대"라고 윤 당선인을 두둔했다. 극성 친문 네티즌은 할머니를 원색적으로 조롱하거나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할머니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 아닌가.

### 중소기업 육성위한 체계화된 정책 요청된다

글로벌 시대에 특화된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첩경이다.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 산업인력 공급 등에 최우선적 순위를 부여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새 성장 동력을 찾아 중견 및 대기업으로 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긴요하다.

사다리꼴 형태의 산업구조는 이상적 모델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업 발전적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싹쓸이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심각하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어선 한국경제에 '미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그래서 흔히들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들을 혁신 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신(新) 산업정책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촉구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에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그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제 윤 당선인에게 "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부정 의혹 등을 명확하고 조속하게 소명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사흘 뒤 국회가 개원하면 윤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온갖 사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행여 불체포특권이란 보호막 뒤에 숨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윤 당선인은 할머니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사건인 만큼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언론 등에 제기된 의혹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규명하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인 만큼 당연한 조치다. 검찰은 좌고 우면하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최초로 시작한 제품 디자인 중심의 지식재산(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 지원 사업이기에 도내 신규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긍정 평가할 일이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는 대기업, 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관계를 2, 3차 기업으로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길 바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어선 한국경제에 '미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그래서 흔히들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화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들을 혁신 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신(新) 산업정책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길 촉구한다.

**eTEC 이테크 건설**

이테크건설은  
고객이 꿈꾸는 이상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 43년 만에 경주 황남동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 다시 출토

## 120호분 조사서 신라시대 금동 신발, 허리띠 은판, 금동 말안장 등 발굴현장 공개, 향후 발굴 통해 피장자 신분과 머리 관 추가 밝혀야



문화재청과 경북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주 황남동 120호분'(조사기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각종 말갈춤 장식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아직 발굴조사가 초기 단계이지만, 금동 신발 등 출토 유물의 중요성을 고려해 27일 발굴 현장을 공개했다.

▲ 오전 11시: 언론 공개회 / 오후 2시: 일반인 현장 공개 (경주 황남동 390번지 일원)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내에 위치한 황남동 120호분은 일제강점기에 변호가 부여됐으나 민가 조성 등으로 훼손되면서 고분의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2018년 5월부터 120호분의 잔존 유무와 범위 등을 파악해 앞으로 진행할 유적 정비 사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시작했으며, 2019년 120호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0호분의 북쪽에 위치한 120-1호분과 120호분의 남쪽에



위치한 120-2호분을 추가로 확인했다. 발굴조사 결과, 120호분 봉분은 양호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마사토(화강암이 풍화해 생긴 모래)를 사용해 북서-남동 26.1m, 북동-남서 23.6m 규모로 봉분을 축조했는데, 경주의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묘) 가운데 마사토로 봉분을 축조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0-1호분과 120-2호분은 120호분의 봉분 일부를 파내고 조성돼 있어 120호분보다 후대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120-1호분에서는 쇠술과 유리구슬, 토기류가 출토됐으며, 120-2호분의 매장주체부에서는 대체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5일에는 120-2호분에 묻힌 피장자 발치에서 금동 신발(飾履) 한 켤을 확인했다. 신발은 표면에 'T'자 모양의 무늬가 뚫려 있고, 둥근 모양의 금동 달개(環珞, 영락)가 달려 있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금동 신발이 출토된 적이 있으며, 경주의 신라 고분에서 신발이 출토된 것은 1977년 경주 인왕동 고분군 조사 이후 이번이 43년만의 일이다.

지금까지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신발은 실생활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죽은 이를 장사 지내어 보내는 의례(葬送 儀禮, 장송 의례)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피장자의 다리 부분에서는 허리띠 장식에 사용된 은판(銀板)이, 머리 부분에서는 신발에 달린 것처럼 여러 점의 금동 달개가 걸로 드러나 있는 것도 확인했다. 앞으로의 발굴조사는 이 달개가 머리에 쓰는 관

(冠)이나 관 꾸미개(冠飾, 관식)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것이다.

부장간에서는 금동 말안장(鞍橋, 안교)과 금동 말띠 꾸미개(雲珠, 운주)를 비롯한 각종 말갈춤(馬具, 마구) 장식, 청동 다리미, 쇠술, 다양한 토기류 등이 출토됐다.

발굴조사단은 앞으로 120-1·2호분의 조사를 완료한 후 아직 내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120호분의 매장주체부도 본격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120호분은 120-1·2호분에 비해 봉분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보다 위계가 더 높은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남동 120호분은 발굴조사가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꾸준히 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와 관련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27일 현장 설명회는 언론 공개(오전 11시)와 일반인 대상 공개(오후 2시)로 나눠 진행하며, 참석자들은 발열 확인과 손 소독제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선임연구원 김권일, 054-777-3101, 070-4350-470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장성호 수변길 '제2출렁다리' 오늘 개통한다



정식 명칭 '황금빛 출렁다리' 다리 중앙부 수면과 가까워 '스릴 두 배' 군, 호수 오른쪽 수변 데크길도 조성 중... 명품 트래킹 코스로 입소문

기대를 모았던 장성호 수변길 제2출렁다리가 개통된다. 정식 명칭은 '황금빛 출렁다리'다.

전남 장성군은 오는 6월 1일 유두석 장성군수와 차상현 군의회의장 등 기관장과 공직자, 공사 관계자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황금빛 출렁다리의 위치는 장성을 용곡리로, 제1출렁다리(옐로우 출렁다리)로부터 1km 쯤 떨어져 있다. 도보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 다리 길이는 154m로 옐로우 출렁다리와 동일하며, 폭(1.8m)은 30cm 더 넓다.

옐로우 출렁다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조다. 황금빛 출렁다리에 없는 다리 양 쪽을 지탱하는 주탑이 없는 '무주탑' 방식이 적용됐다. 케이

블이 주탑 대신 지면에 고정된 강재 구조물에 연결되어, 다리 한가운데로 갈수록 수면과 가까워진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리 중앙부 높이가 수면으로부터 불과 2~3m 정도여서 더욱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옐로우 출렁다리 인근에 마련된 편의시설인 '넙실정'과 '출렁정'도 이날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옐로우 출렁다리 시작점에 위치한 출렁정에는 편의점, 건너편 넙실정에는 카페와 분식점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내륙의 바다' 장성호는 사계절 주말 평균 3000~5000명이 찾는 핫플레이스' 라면서 "황금빛 출렁다리가 방문객에게 더 큰 재미와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백태지 기자

1976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장성호는 웅장한 규모를 지녔다. 또 산에 둘러싸여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장성군은 2017년 수변 데크길 조성을 시작으로 이듬해 옐로우 출렁다리를 완공해, 잠룡만 가득했던 장성호를 인기 관광지로 변모시키는데 성공했다. 옐로우 출렁다리가 개통된 2018년 7월 이후, 지금까지 장성호를 찾는 누적 방문객은 70만 명(장성군 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군은 현재 호수 오른쪽 수변 데크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계획구간(3.7km) 가운데 2.6km가 완료된 상황이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명품 트래킹 코스'로 입소문이 났다. 장기적으로는 '수변백리길 사업'을 통해 호수 전체를 수변길로 연결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가는 것이 목표다.

## 평택시 '군 소음법'하위법 제정, 유리한 목소리 낸다



경기 평택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대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회의에는 군 소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 '군 소음 TF팀'도 참석, 하위법령 안 및 보상 절차 등에

긴급 '군·지·협 소속 지자체 관계자 실무자 회의' 개최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하위법령(안) 논의키로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소음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함께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도 담겨 있다.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 회원 지

자체들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공행과 동일 수준인 '75웨클' 이상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제한 완화 △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삼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하위법령에 따라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군사시설 주변 소음 영향도 조사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을 확정, 2022년 상반기 중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평택/유기영 기자

# 담양군문화재단, 주말 프로그램 '공공연한 이야기' 진행

###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요소를 제공할 예정 6월에는 전통적 '내 마음 신명나게'라는 주제

전남 담양군문화재단에서 담양의 주말을 채울 음악공연을 진행한다.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길 사업팀은 담양읍 국수의 거리에 위치한 카페 달순 앞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공공연한 이야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통한 문화 예술의 영향력 확산과 10월까지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군민과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요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5월에는 '국악, 새로운 흐름을 입히다'를 주제로 전통에서 현대까지의 감성으로 동시대 사람들이 몰입시키는 음악을 선보이며 6월에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담긴 '내 마음 신명나게'라는 주제로 전통 음

악의 흥을 통한 마음 치유, 7월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의 소통 및 담양 자연과의 어울림을 형상화한다.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팀은 퓨전 국악그룹인 '루트머지'로 가야금 홍윤진, 김다희, 해금 문보라, 장구 김종일, 건반 김현화, 베이스 조중현, 보컬 정수연, 유희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실력과 그룹으로 한국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총동과 소통을 통해 음악을 재해석 하고 있다.

한편 구 천변정미소를 재생한 천변리 정미다방에서는 매 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4시부터 운영되는 프로그램 '정미살롱'과 매주 토요일



일 담빛길 내 라디오스타 스튜디오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주민 마을 방송 프로그램 '2020 담빛라디오스타'를 진행하는 등 문화가 가득한 주말을 만들어가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생태도시조성 담양/김승혁 기자

#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버스킹 공연 진행



경기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에서는 27일부터 안성시 중앙시장 입구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0분간 주2회 버스킹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2002년 안성시립 풍물 단 창단 이래 처음 실시되는 이번 안성시장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구도심 상권을 되살리고자하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마냥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공연자뿐 아니라 관객과 관객들 간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과 진행자를 두고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은 1989년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안성남사당보존회를 기반으로 2002년 창단되어, 그동안 2002 한일월드컵, 2004 아테네올림픽, 2006 독일월드컵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대표 민속공연단체이다. 안성/유기영 기자

# 행복 충전 '이야기가 있는 발코니 음악회' 개최



경기 하남시는 최근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로 빛나는 학습공간인 미사 신안인스빌아파트에서 '이야기가 있는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발코니 음악회에는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을 비롯해 아파트주민자치회, 평생학습 별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이야기가 있는 발코니 음악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집 안에서 발코니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며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회복을 돕고자 추진됐다.

이번 음악회는 성악과 악기·연주곡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장르(가곡, 오페라, 영화음악, 뮤지컬)의

연주를 선보이며 주민들이 감상하기 편한 곡들로 구성됐다.

한편,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공연 질서 유지와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공연에 참석한 주민들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어 이번 콘서트의 의미가 더욱 새롭다며, 코로나19로 지친마음을 위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자주 이런 행사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야기가 있는 발코니 음악회'는 앞으로도 미사·위례·원도심 등 하남시 '빛나는 학습공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5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하남/이광희 기자

# 연천군, 연강갤러리 출품작 사진전시회 개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NO~ 행복 바이러스는 OK YES! -

경기 연천군은 최근 연천군청 본관 2층 복도에서 「연강갤러리 출품작 사진전시회」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출품된 작품들은 한탄강과 임진강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연천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사진 앵글에 담고 있으며, 관내에서 활동 중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연천지부 사진작가들의 협조로 성사 되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연강갤러리에 전시 중인 사진작품중 일

부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연강갤러리가 임시 휴관에 따라 지역주민과 균형 방문객에게 연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순회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광철 연천군수는 개막식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연전시가 연기, 취소되어 문화예술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연천군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연천/김승근 기자

# 고양소방서, "소방내전"출판 기념식 가져

경기 고양소방서(서장 서은석)는 최근 "소방내전" 출판 기념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내전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지휘관이 현장에 맞는 전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교본이다. 이 교본이 만들어진 배경은 신속한 화재진압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난해 9월 TF팀을 만들어 국내 및 해외까지의 화재 사례를 비교했다.

소방차량 부서 방법과 고시원 등 장소별 화재 특징, 화재진압 방안 등 효율적으로 소방차량을 배치하고 신속하게 소방호스를 이용해 현장 접근하는 '한국형 현장대응 전술'이 바로 '소방내전'의 핵심이다.

추가적으로, 고양소방서(서장 서은석)는 효율적인 전술을 위해 한국형 소방호스 전개기도 개발했다. 기존에 협소한 장소에서 난항을 겪었던 현장에 있어서 이 전개기의 개발은 매우 효과적인 현장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서 서장은 "이번 전술교본(소방내전) 및 한국형 소방호스 전개기로 단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단 1초라도 더 빠르게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고양소방서는 앞으로 맞춤형 소방전술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전에서 쓰일 때의 문제점 파악 및 보완과정을 거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성태 기자



**경찰연합신문** **서울포커스** [www.koreapolicenews.com](http://www.koreapolicenews.com)

회장 송원기 발행·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현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42, 3층(대치동, 덕유빌딩)  
 2020년 5월 13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가50142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물**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http://mall.boseong.go.kr) 보성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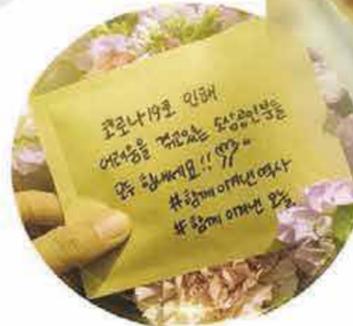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TYuYk5bhc69PcPyQ>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뒤편 국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뤄내고 20개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나라 모든 하늘길이 막혔어도,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나라 그 뒤편, 국민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고 따뜻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국민의 모습이 70억 세계인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국민 곁에 KB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